

유럽의 전문용어학 연구 현황과 한국의 향후 연구과제

임 현 경

(KU Leuven/Thomas More Antwerpen, Belgium)

Lim, Hyun kyung. Terminology developments in Europe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his paper explores theoretical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terminology science in Europ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various fields and domains interacting to facilitate specialized communication. The definition and key concepts of terminology science as well as its correlation with other areas of specialized communication are carefully examined. Also discussed are the classical theory of terminology science, which has largely influenced and been influenced by global efforts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criticism on its assump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o-, communicative and cognitive terminology, followed by the latest theoretical trends in terminology theories. This paper also provides potential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terminology science in Korea.

Keywords: terminology science, terminology work, standardization, classical theory, prototype theory

■ 차례

- | | |
|----------------------|-------------------------|
| I. 왜 전문용어학인가? | III. 유럽의 전문용어학 연구 동향 |
| II. 전문용어학의 특성 | 1. 고전이론 |
| 1. 전문용어학의 정의와 학문적 기원 | 2. 고전이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접근법 |
| 2. 주요 개념 | 3. 최근의 연구 동향 |
| 3. 전문용어학과 연관 분야 | IV. 한국의 향후 연구과제 |

I. 왜 전문용어학인가?

20세기 이래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단일국가 차원은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전문분야 기술 및 상품의 국제적 표준화,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호성을 배제하고 표준화된 용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전문분야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용어학 연구 및 전문용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대 전문용어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오이겐 뷔스터(Eugen Wüster)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으로, 다음 절에서 설명할 국제표준화기구(ISO) 전문위원회 TC 37의 전문용어 표준화 활동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가 제창한 ‘일반 전문용어학 이론(GTT: General Theory of Terminology)’에도 전문용어 표준화와 관련된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본고의 중점 연구대상인 유럽은 전 세계적으로 전문용어 관련 이론 연구 및 실무가 가장 발전한 지역이다. 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의 국제표준 관련 기구가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식량농업기구(FAO)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지역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EU 산하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인 IATE 등 지역적 및 국가적 수준에서도 다양한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북유럽 국가군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전문용어학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동안은 전문분야 표준화 실무경험을 바탕

으로 한 뷔스터와 비엔나 학파의 고전이론이 오랫동안 지배적 위치를 향유해왔으나, 최근에는 실무로서의 표준화에 초점을 맞춘 고전이론의 기존 가정을 비판하는 한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전문용어학 연구는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주제분야 전문가의 노력 위주로 전개되어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기관인 한국전문용어전문위원회(ISO_KR/TC 37)는 ISO TC 37의 국가별 전문위원회로서 전문용어 관련 국제표준 제정 및 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하 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KORTERM)는 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전문용어 연구기획·수행·조정 체계 확립, 전문용어 개발환경 구축 및 표준화, 전문용어 심포지움 개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주제분야 전문가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관점에서 전문용어학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국내 사례는 많지 않다. 학제적 학문분야로서의 번역학과 전문용어학의 비교분석을 통해 일반 전문용어학 이론과 소통중심 전문용어학 이론을 소개한 정호정(2010)을 중심으로, 일부 학자가 전문분야 커뮤니케이션 증진에 기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문용어학에 대한 연구를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전문용어학 이론 전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전문용어 작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의 이론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다양한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문분야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하는 학제적 학문으로서 전문용어학이 가지는 특성과 관련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 2절에서는 전문용어학의 정의와 기원, 주요 개념, 관련 학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제 3절에서는 전문용어학 고전이론과 원형이론을 중심으로 유럽 전문용어학 연구의 전개양상 및

최근 동향을 알아본다. 제 4절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용어학의 발전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